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9호 【루계 제2264호】

주체103(2014). 3. 1 토요일 음력 2. 1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의 사상중시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의 강화와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중앙과 지방의 선전일군들과 혁명사적, 출판보도,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초급선전일군들, 조선로동당, 무력,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1일회의가 24일 진행되였다.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일환, 륙해운성 당위원회 책임비서 천광식, 리정남이 사업하는 종합식료가공공장 초급당부비서 김택렬, 법동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 강계시당위원회 비서 김원호, 상업성 초급당비서 안재용, 로동신문사 론설원 송미란,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만수대창작사 단장 김호성, 청진시당위원회 비서 황명철, 신천군 우산협동농장 부문당비서 우인영, 제남탄광 초급당비서 한학종, 고원철길대학습강사 리영도, 량강도당위원회 비서 김재영, 함흥시 동흥산구역당위원회 비서 한도집, 유원지총국 당위원회 비서 리현철,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비서 리형철이 토론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2일회의가 25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높이 추켜드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당사상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계속되였다.

삼지연혁명사적관 과장 강정옥,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림경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류도홍,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 리경진, 안주시당위원회 비서 황상철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대회참가자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대회합을 마련해주시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폐회사를 하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만세》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당사상일군으로서의 사명감과 영예를 깊이 자각하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력사에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이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상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당사상전선에서 사상포문을 일제히 열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총궐기시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과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사진척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중량부재들과 골조공사가 끝난 건물들을 보시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이것이 바로 단숨에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을 바라보니 벌써부터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보는것만 같고 물고기떼가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를 건설할것을 결심할 때 그 무엇이든 맡기면 못해낸 일이 없는 인민군대가 떠올랐다고, 그래서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긴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건설장에서 창조되는 기적과 혁신을 놓고보아도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선에 서있으며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로동당력사는 변혁과 창조의 시간으로 흐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건설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조국과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할 건축물을 자기들이 맡아 건설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립장에서 수산사업소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로동당시대의 걸작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설계가 선행되여야 하는것처럼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시대를 주름잡는 롱마의 기수들답게 력사의 한페지를 남기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이 들썩이게, 부글부글 끓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건설이 끝난 즉시 어로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선장, 어로공모집과 그들을 만능어로공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잘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공사를 제기일에 훌륭히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수족관, 조류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겨울철조건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각과 식당의 개건보수를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심어주는것과 함께 자립성을 키워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야영생활기간에 제손으로 밥도 짓고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수 있게 그에 필요한 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친선소년회관의 설계가 특별히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야영생들이 이곳에서 영화와 여러가지 록화편집물도 마음껏 볼수 있게 최신식영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들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넓고 시원하게 닦아놓은 운동장을 보시고 륙상주로를 만들어주고 축구장바닥에 인공잔디까지 깔아주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이번에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현대적인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관도 새로 꾸려주고있는데 야영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에 수족관과 조류사도 새로 건설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야영소가 없을것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이 야영의 나날을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수 있게 그에 필요한 각종 전자유희시설들과 문화오락기재들도 당에서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사업은 올해 건설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건설해야 한다고, 힘이 들어도 질적으로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떳떳이 넘겨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것은 아이들을 한평생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개건전투를 제기일에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사변

판문점을 현지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해가 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려는 겨레의 열망과 의지가 더욱 강렬해지는 오늘 사람들은 잊을수 없는 추억의 봄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본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그 봄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이 주는 여운은 자못 큰것이다.

하늘같이 믿고 따르던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온 민족이 쏟던 12월의 피눈물이 아직도 채 가셔지지 않은 2012년 3월 조선반도는 또다시 전쟁이냐 평화냐, 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준엄한 력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외세와 남조선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은 방대한 병력과 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던것이다. 국지전과 전면전,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계획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실행되고 공화국의 주요지점을 점령하기 위한 사상최대규모의 상륙작전연습도 벌어졌다. 이 땅은 또다시 전쟁의 수난을 강요하며 다가오는 침략의 발자국소리에 몸부림치고있었다.

이제 조선반도의 정세는 어디로 흐를것인가?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다가들고있던 그 준엄한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였다.

평화적인 국경선도 아니고 정전상태로 하여 교전쌍방이 직접 대치하고있는 전초선, 최전방으로 나라의 최고령도자께서 직접 나가신다는것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예상할수 없었던 일이였으며 적대세력에게 있어서는 급소를 강타당한것과 같은 일대 충격이였다.

돌이켜보면 주체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험천만한 이곳 판문점에 대한 력사적인 시찰을 단행하시였다. 그때에도 일군들과 판문점의 초병들이 위험하다고 더 나아가시지 말아달라고 아뢰이며 앞을 막아나섰지만 장군님께서는 나는 빨찌산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초병들이 지켜서있는 판문점에 나가시였다.

그런데 이런 판문점을 두해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찰하신것이다. 그날 판문점에 나오시여 대낮에 적의 총구가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판문각로대에까지 서시여 쌍안경으로 남쪽하늘을 바라보시던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격정을 삼키였다. 그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백두산악과 같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단호한 결단력을 지니신 원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단행할수 없는 선군령장의 애국의 발걸음이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그 누가 사회주의 조선을 감히 넘겨다보며 어째보려고 달려든다면 단호히 요정내버릴 선군조선의 단호하고 억센 기상을 내외에 시위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하기에 온 겨레는 그이의 판문점시찰에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었고 북침을 노리는 적대세력들은 공포와 전률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당시 남조선과 해외의 인터네트들에는 이런 글이 련속 올랐다.

《청청하늘에서 섬광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것 같아 깜짝 놀랐다.》, 《미국이 신물이 날 지경으로 자랑하고 일부 〈한국〉 인들이 철석같이 믿는 정찰위성, 고공기구, 전자정찰기들은 다 뭘 했단 말인가? 시찰이 어느날 진행됐던지 이번 공개는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습들을 겨냥한 반격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여도 우리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어째볼수는 더욱 없다.〉는 식의 강력한 배짱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귀납한 구절이 없는데 필자가 볼 때 〈강경자체를 물거품만들기〉 라면 비슷하지 않을가싶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조국수호를 위한 거룩한 발걸음인 동시에 민족이 바라는 통일을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력사적인 장거였다.

그날 분렬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이 짙게 어려있는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필비의 글발을 한자한자 주의깊게 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오랜 시간 판문점에 숭고한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며 온 겨레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오늘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은 70년을 가까이 하여오고있다. 그러나 천출위인이 계시고 애국의 선군정치가 있어 침략세력의 갖은 전쟁위협속에서도 겨레의 안전은 보장되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살며 복락을 누릴 자주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은 태고적부터 한강토우에 하나의 피줄을 잇고 살며 자자손손 복락하여온 단일민족이다.

그런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두동강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나긴 세월 분렬의 아픔이 얼마나 참혹한것인가를 뼈저리게 강요당해왔다.

하기에 통일은 우리 민족, 조선민족만이 바라는 일이며 이로부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조선민족끼리 풀어야 할 민족문제인것이다.

허나 지난 시기 조선반도의 정세는 다치면 터질듯 한 최악의 전쟁국면이 가로놓이는가 하면 북과 남사이에 열렸던 문이 닫기고 대화와 래왕,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차디찬 기운이 휩쓸어 겨레의 불안과 위구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갈라진 겨레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의 통일문제에 외세가 끼여드는것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 민족끼리의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봄볕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불신의 동토대를 녹이는 환희의 해살이였다.

그 해빛아래 북과 남의 헤여진 동포형제가 분렬의 장벽을 넘어 한자리에 모여앉아 꿈과 같은 상봉을 하였고 대화와 접촉, 래왕과 협력의 넓은 길이 열리는 경이적인 사변도 이룩되였다.

겨레에게 환희를 주고 통일의 래일을 그려준 우리 민족끼리리념만이 가장 정확한 자주의 길, 통일의 길이라는것을 확신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소동으로 전쟁위험이 짙게 떠돌던 주체101(2012)년 3월초 위험천만한 열점지대인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일찌기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원수님께서는 판문점로대우에 거연히 서시여 지척에 있는 남녘땅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기어이 지르려는 호전세력의 책동을 용납치 않으며 총대로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수호하시려는 선군령장의 단호한 의지와 담력의 과시였고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가 강요하는 민족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시려는 결연한 통일의지의 시위였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그이의 판문점시찰에서 자주통일에 대한 커다란 신심을 새겨안았고 통일의 원쑤들은 공포와 전률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절세의 위인이 계시고 북남공동선언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머지않아 이 땅우에는 온 겨레가 기쁨속에 얼싸안을 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시

판문점에 봄우뢰친다

김송림

두해전 3월
원수님 오셨던 그날
겨레가 터친 감격과 격정
여기에 다시 터져오르는가
판문점에 봄우뢰친다

오시여 걸음걸음
내짚으신 담력의 발자욱소리는 아닌가
판문점의 하늘을 흔들며
우렁우렁 울려퍼진 그 음성은 아닌가
판문점에 울리는 봄우뢰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그 3월
밀려오는 불구름 맞받아
원수님 오시였거니

누구나 울수 있는 곳이 아니였다
우리 원수님 아니시고선
그 누구도 올수 없는 곳
한자욱도 나설수 없는 판문점

판문점로대우에 올라
쌍안경을 드시여
남녘을 굽어보시던 원수님 모습
그 모습은 무비의 담력, 배짱을 지니신
천출명장의 모습

아, 그날은
우리 겨레가 운명을 맡길
가장 강하신 수호자를 뵈온 날
민족을 안아 통일에로 이끄실
가장 걸출한 위인을 뵈온 날

한몸으로 막아주신 전쟁의 불구름
령장의 그 기상으로 울리는 봄우뢰
그 어떤 침략자도 단호히 쓸어버릴
령장의 그 의지를 안고 울리는 봄우뢰
침략자의 포성을 짓누르며 울려퍼지거니

겨레는 믿노라
기운차게 울리는 저 봄우뢰소리에
분렬의 장벽은 무너지고
전쟁의 불구름은 산산이 흩어지리라는것을
이 땅 삼천리에
통일의 환호성으로 터져오르리라는것을

뜻깊은 력사의 이날을 잊지 말라고
봄우뢰친다 봄우뢰친다
겨레를 통일에로 부르고 부르며
오, 판문점의 봄우뢰
통일의 봄우뢰로 울려퍼진다

인민사랑의 일화들

앞당긴 착공날, 늦춰진 착공날

주체47(1958)년 3월 어느날 아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갓 풀리기 시작한 얼음때문에 대동강의 나루배가 움직이지 못하는것을 보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평양의 도시중심부와 동평양지구를 련결하는 다리는 대동교뿐이여서 배길이 막히면 많은 사람들이 대동교로 에돌아다니군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리건설을 한시도 미룰수 없다고 하시면서 몸소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며 몸소 다리위치를 정하시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옥류교건설은 원래 착공날자보다 3년이나 앞당겨 시작되게 되였다.

천리마거리건설이 예정보다 석달이나 늦게 시작된데도 깊은 사연이 있다.

주체59(1970)년 1월 중순이였다. 어느날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철거되는 세대들이 겨울에 이사를 하게 하면 곤난한 점이 많을것이다, 지난해에 시작된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어 빨리 완공한 다음 거기에 철거지대 사람들을 옮기고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늘어난 관성렬차선로길이

주체65(1976)년 11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한장 또 한장…

유희기구사진들을 마지막장까지 보시고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시 첫장을 펼치시였다.

첫장에는 관성렬차가 찍혀져있었다.

관성렬차선로의 길이가 얼마인가고 하시는 그이의 물으심에 한 일군은 1 350m라고 대답을 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에서 제일 긴것은 얼마인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1 350m라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 수자를 몇번이나 외우시고는 세계적으로 제일 긴것이 1 350m라고 해서 그이상 더 크게 해서 안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이왕이면 관성렬차의 선로를 좀 더 길게 하여 1 500m로 하자고 하시였다.

1 350m와 1 500m.

인민들에게 더 좋은것, 더 훌륭한것이 차례지게 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긴 대비적인 수자인것이다.

본사기자

다시 찾은 이름과 집

국제태권도련맹 제9차총회가 진행될 때였다. 최홍희 총재(당시)가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태권도라는 간단한 글자를 만들어놓고 이 세상에 가냘픈 목소리로 웨칠 때 즐겁기도 하면서 암담한 생각도 들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다. 나의 대부분 인생은 비행기에서 보냈다고 말할수 있다.

가방을 바꾸기 위해서 들리는 집은 카나다에 있었고 사는 집은 하늘에 있었다.

나의 이름도 하나는 최홍희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태권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름과 집은 길떠난 나그네의 신세를 면치 못하여 풍파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오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나의 이름인 태권도를 다시 찾고 그 어느 왕궁과도 대비조차 할수 없는 나의 집인 태권도전당을 받아안았다.》

계속하여 그는 절세위인들의 품이 있어 태권도의 이름과 집을 다시 찾고 온 세상에 빛내일수 있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본사기자

후대사랑과 민족의 미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새로 개건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날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등 건설현장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였다.

주체49(1960)년 8월에 문을 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손길이 깃들어있는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 과외교양기지이다.

나라의 제일 좋은 곳에 멋있는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을 세우도록 하시고 학생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놀며 앞날의 주인공들로 자라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같은 그런 어버이는 세상에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조국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라고 하시였다.

피어린 항일대전의 나날 마안산의 혹한속에서 헐벗은 아이들을 자신께서 덮으시던 모포로 따뜻이 감싸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님의 체취가 스며있는 돈 20원까지도 아이들의 새옷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해야 할 일, 긴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그처럼 많았건만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제기하시고 무료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시여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는 시책을 마련해주시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영양가높은 콩우유를 마음껏 먹일수 있게 되였을 때에는 너무도 기뻐시여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의 생활에서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부르는 아이들속에 있을 때라고 하시며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고있는 행복관이라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후대중시, 후대사랑의 경륜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 펼쳐졌다.

장군님께서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오늘보다 래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는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하시였다.

가장 고결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천진란만한 웃음에서 부강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시며 민족의 운명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애국헌신의 기나긴 장정을 이어오시였다.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친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가 후대들을 위해 선군의 길을 걸고걸으신 장군님의 그 로고를 오늘도 그대로 전하고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해빛밝은 교실의 창가마다에서는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변함없이 울리고 콩우유차가 아이들을 찾아 쉬임없이 달릴수 있었던것도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통일애국투사인 한 비전향장기수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여났을 때 《축복》이라 이름지어주시고 량강도 대홍단의 제대군인부부가 이제 태여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올리는 소청도 받아주시여 아들이면 《대홍》, 딸이면 《홍단》이라 이름짓도록 각근히 보살펴주신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에 의해 길이 이어지고있으며 이 나라의 아이들은 희망과 포부의 나래를 마음껏 펴고 조국의 기둥, 앞날의 역군으로 자라고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고 여기에 친히 참석하신 원수님께서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다고,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한다고 하실 때 소년단대표들과 온 나라의 학부형들이 체험한것은 후대들의 밝은 앞날과 민족의 창창한 전도가 달려있는 그이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였다.

언제인가는 평양에 있는 경상유치원의 재간둥이들을 위해 온갖 교육조건을 다 마련해주도록 하시고 때로는 새 살림집에 입사한 한 로동자가정을 찾으시여 꼬마에게 그림그리는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축구를 한다는 맏이의 소질을 아시고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라고 장래를 축복하신 원수님이시다. 새 세대들에게 기울이시는 그이의 은정은 무도, 장재도를 비롯한 섬초소의 아이들에게도 뜨겁게 미치고있으며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며 즐겁게 뛰노는 등산길에도 어려있는것이다.

그이의 후대중시, 미래사랑에 대해 브라질의 한 단체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후대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김일성주석께서 온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새 교복을 마련해주시고 새옷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사진찍어 주시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아직도 생생하다. 또한 산골마을 세쌍둥이를 위해 직승기까지 띄우신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후대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그 사랑이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는것이다.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조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덕망과 보살핌속에 지금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새롭게 변모되고있는것이다.

세기를 이어 베풀어지는 위대한 후대사랑의 화원속에 새 세대들이 나라의 아름다운 꽃봉오리,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주인들로 믿음직하게 자라고있는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동성희

자주적립장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립장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안팎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기상이 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도 이룩해나갈수 없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이 장장 70년이 되여오도록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 자체가 외세의 끈질긴 간섭과 방해책동에 기인된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민족문제를 옳바로 해결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외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흉심이 있을뿐이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세력에게 눌리워 모든것을 양보한탓에 여러 나라들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처참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민족은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자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여야 한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운동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다.

자주적운명개척의 힘은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있다.

자주적립장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게 함으로써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게 한다.

조선분렬의 원흉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은 오늘도 북남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에서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현시기 날로 로골화되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짓부셔버릴수 있다.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밑에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만이 내외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투철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대와 외세의존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려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에 각성있게 대처해나가며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배족행위에 준엄한 철추를 가해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 지향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민족자체의 힘을 믿고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는데 있다.

조국통일의 리정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도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리념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온 삼천리강토를 격동과 환희로 끓어번지게 한 력사적사변과 성과들은 모두 민족자주적립장, 우리 민족끼리의 궤도우에서 이룩된것이다.

력사와 현실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통일위업실현의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대를 튼튼히 세워나감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림 소 영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진행

지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금강산에서 진행되였다.

20일부터 22일까지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에서 북측 가족, 친척들이 남측의 혈육들을 만났다.

북측 가족, 친척들은 남녘의 혈육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보람찬 나날들에 대해 전해주며 자기들뿐아니라 온 가족이 고마운 조국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

23일부터 25일까지 북측 상봉자들이 남녘의 가족, 친척들과 만났다.

외세에 의하여 빚어진 민족분렬로 하여 기나긴 세월 헤여져있던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얼싸안고 안부도 전하면서 혈육의 정을 뜨겁게 나누었다.

북측 상봉자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존엄높고 긍지높은 삶을 누려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남녘의 가족, 친척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의 이야기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과정에 받아안은 훈장들과 메달들은 남녘의 혈육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남측 적십자사에서는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은 작별하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약속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지향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2월 2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금이야말로 말한마디를 하고 행동하여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국방부와 통일부관계자들은 《대북심리전》과 《북인권 강조》는 《비방중상과 별개》라는 주장을 들고나오면서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회담탁에 마주앉아 합의하고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는것은 대화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례의마저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지고있던 때에 미국은 남조선군을 부추겨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해마다 벌려놓는 전쟁연습으로 핵전쟁위험만 증대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정세를 계속 긴장시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말고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속히 제 소굴로 물러가야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북침전쟁연습의 중단은 첨예한 긴장상태와 대결국면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옳바른 립장을 취해야 할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단상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얼마전 TV화면으로 전해지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소식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역시 우리 겨레는 한피줄이구나,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과 전쟁으로 인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다가 60여년만에 꿈같이 만난 가족상봉자들이다. 반세기도 더 넘는 오랜 세월을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이 다른 북과 남에서 남남으로 갈라져 살아왔지만 그들은 만나자마자 부등켜안고 인차 하나가 되였다.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살아온 지난날을 이야기해주며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었다.

금강산에서의 가족들의 만남은 혈육의 정은 세월의 흐름으로도, 리념과 제도의 차이로도 가를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하기에 남녘의 언론들도 가족상봉을 보도하며 《오랜 시간 떨어져있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다.》고 전하였다.

북에서 왔든, 남에서 왔든 피줄은 속일수 없는것처럼 반만년 오랜 력사속에 하나의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온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이번 가족상봉이 보여주듯이 사상과 리념우에 민족이 있으며 혈육의 정, 민족성은 가를래야 가를수 없고 북과 남은 하나로 합쳐져야 사는 유기체, 운명공동체이다.

근 70년 분렬의 고통을 겪었어도 우리 민족은 5천여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겨레가 면면히 이어온 단일민족의 전통을 흐릴수 없다.

남이 아닌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가 되여야 한다.

통일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하나로 어울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민족의 밝은 미래이다.

이번 금강산에서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지켜보면서 겨레는 화해와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올 의지를 드높였다.

리 경 순

통일의 길에 울려가는 3.1의 메아리

1919년 3월 1일은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 쌓이고쌓인 조선민족의 울분과 망국의 설음이 마침내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른 날이다.

일제가 날조한 침략적인 《을사5조약》으로 인한 나라의 멸망을 두고 통분하여 《시일야방성대곡》을 터뜨리던 민족이, 《합병》 후 야만적인 암흑의 통치, 수탈의 시대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장하게도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며 분연히 일떠선것이다.

만세시위는 전국 232개의 부, 군가운데서 229개의 부, 군을 휩쓸었으며 국내만이 아니라 만주와 상해, 연해주, 일본, 하와이를 비롯하여 단 한명의 조선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벌어졌다.

근 한세기에 달하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3.1인민봉기의 만세함성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귀전에 들려온다.

아흔다섯돌기의 년륜을 새기는 3.1인민봉기를 맞으며 그날의 정신과 교훈을 다시 음미해보고저 한다.

* *

3.1인민봉기를 발발하게 한 정신적요인이 무엇인가, 일제의 극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근 1년간 만세시위를 지속시킨 정신적지주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조선민족성원이라면 하나와 같이 대답할것이다.

《자주독립!》

그렇다, 3.1인민봉기는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였다.

오늘도 우리 겨레가 《조선의 쟝느 다르크》라고 애정을 담아 추억하고있는 류관순은 공주재판소법정에서 이렇게 절규하였다.

《나는 조선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류관순뿐이 아니다.

기발을 들었던 오른팔이 잘리우자 왼손에, 왼팔마저 잘리우자 움직일수 없는 순간까지 독립만세를 불러 놈들을 전률케 한 녀학생도 있었고 일제의 총창에 찔리우자 《내 가슴에서 흘리는 붉은 피가 왜놈의 섬나라를 태워버릴것이다.》라고 분노를 터뜨린 평안북도의 13살난 소년도 있었다.

이것은 조선사람이 조선사람답게 살려는 민족자주정신의 표출이였다.

그 정신은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의 민족의 애국정신, 자주독립의 지를 과시하였다.

3.1운동의 의사들은 민족의 생존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원천이 자주성이고 외세의존이 아니라 독립만이 민족이 살아나갈 길임을 수난의 력사와 시대적감성으로 자각하고있었다.

그러한 자률적각성이 전민족적인 봉기를 일으키게 하였고 불굴의 기개와 영웅성을 낳게 한것이다.

평양에서는 3월 1일 첫날에만도 10여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서울, 의주, 남포, 원산, 안주, 선천 등 전국각지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이 일떠섰다.

기록에 의하면 4월 1일 해주의 기생들이 《기생도 이 나라 백성이거늘…》이라며 자체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시위에 나서자 이에 합세한 군중이 삽시에 3 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망국의 회한과 독립의 소원이 력사의 마당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고 자주독립의 책무와 조선민족된 의무를 안고 계급과 계층, 빈부, 남녀로소,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봉기에 궐기하게 한것이다.

당시 경기도 경찰부 경찰부장 지바가 3.1인민봉기에 대해 《천변괴이의 상》 즉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전률한것처럼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은 거족적인 힘으로 폭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쓰시였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은 우리 인민이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우리 겨레는 3.1인민봉기를 통해 외세의 지배와 억압에 순종하지 않는 자주의 기개를 널리 과시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3.1운동의 만세소리의 여운은 오늘도 남아있다.

8.15해방이 근 70년의 분렬로 이어진 아픔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3.1의 정신이 주는 일깨움이 있다.

—미국을 믿지 말라—

《통상》을 한다며 중무장한 《셔먼》호를 끌고왔었고 《타프트—가쯔라》협정으로 일본의 《보호통치》를 인정한 미국, 일제를 원쑤로만 여기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원쑤를 사랑하라》, 《일본인을 사랑하라》고 설교했던 미국이다.

3.1인민봉기에 대해 미국의 《쌘프랜씨스코 크로니콜》지는 《조선인민이 마음놓고 편안히 살아갈수 있게 해준것이 일본을 제쳐놓고 다른데 어디 있는가》라고 야유하며 우리 민족에게 순종을 설교하였다.

그 미국이 8.15해방때에는 한갖 종이장인 지도우에 그어놓은 가느다란 선으로 이 강토뿐이 아니라 반만년 이어온 한민족의 혈맥을 끊어버렸다.

해방과 함께 환희에 울고웃으며 만세를 부르던 동족이 서로 수십년동안 총부리를 맞대게 하는 비극을 강요하였다.

부모와 자식이, 친척, 친지들이 반세기넘어 생사여부를 모르고 헤여져 살아야 하는 뼈으스러지는 고통을 연장시키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화해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전진을 음으로양으로 가로막고있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하기 위해 북과 남이 마주앉은 지난 2월 5일에도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를 남조선상공에 출격시켜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외세에 대한 사대로는 조선독립을 선사받을수도, 성취할수도 없다는것을 후대들에게 똑똑히 경고한 3.1의 교훈이 그렇고 미국에 의한 분렬로 고통에 몸부림쳐온 근 70년의 세월은 이렇게 웨친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를 지키자면 민족의 힘이 강해야 하며 그러자면 북과 남이 힘을 합쳐야 한다.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3.1인민봉기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분렬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손잡고 한목소리를 낼 때 그 어떤 외세도 감히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했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에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천명하였을 때에도…

북과 남, 이것은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삼천리강토의 이름이 아니다.

반만년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세상에 보기 드문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그리도 소중히 지키고 빛내여온 부름이 아니였다.

망국의 암흑속에 방황하던 40여년의 식민지비운속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지켜낸 우리 조선이 반세기를 훨씬 넘은 오늘까지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너무도 가슴저리고 뼈에 사무치는 비극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자 북과 남이 마련한것이 우리 민족끼리다.

우리 민족끼리!

소박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뜻이 담겨져있는가.

간결하지만 얼마나 원대한 래일을 약속해주는가.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자주의 정신, 우리 민족의 뭉친 힘으로 통일을 기어이 이루려는 대단결의지가 맥박치고있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3.1인민봉기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북과 남이 분렬로 존재하는 비극적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겨레가 다시금 깨닫는 진리가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 *

래년이면 분렬의 70년을 맞이하게 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분렬된 강토, 갈라진 민족의 모습이 새겨지지 않게, 후대들까지 더이상 력사의 갈피갈피에 분렬의 수난을 새기지 않게 우리 세대에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3.1인민봉기에 울려퍼진 《조선독립 만세!》의 함성이 《조국통일 만세!》의 함성으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

김 정 혁

《보안법》을 철폐할것을 요구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재미동포들의 투쟁이 2월 21일과 22일 미국의 뉴욕, 로스안젤스, 워싱톤에서 각각 전개되였다.

시위와 집회들에서 참가자들은 불법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량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보안법》을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할 최고주권기관 대의원선거

다가오는 3월 9일 공화국에서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지금 누구나 공화국의 력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장을 아로새길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면서 선거날을 기다리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948년 9월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5년이다.

2009년 3월 8일 공화국에서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번에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게 되는것이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민주선거

공화국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난 기간 진행된 선거들에서는 인민의 대표들이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되였다.

그중에는 평범한 신발수리공도 있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시설관리공, 탄부도 있으며 심심산속의 산림감독원, 지식인, 종교인들도 있다.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기준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얼마나 일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 대의원이 될수 있는것이다.

5년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된 대의원들가운데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 예술인들과 함께 군인이 16.9%, 로동자가 10.9%, 농장원이 10.1%, 녀성이 15.6%를 차지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하원의원후보로 나서려면 평균 100만US$의 선거비용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얼마 안되는 월임금으로 살아가는 미국의 로동자들에게는 일생을 벌어도 못다 벌 막대한 금액이다. 때문에 돈없는 사람은 애당초 국회의원이 될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공화국에서 선거에 참가할수 있는 공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있다. 선거장에 특별한 사정으로 갈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동선거를 할수 있게 되여있다.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소중한 권리를 누구나 빠짐없이 행사하라고 선거는 국가적인 휴식일에 진행되군 한다. 오는 선거일 3월 9일도 일요일이다.

공화국의 선거는 철두철미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선거이다. 그래서 누구나 선거에 관심이 많고 빠짐없이 선거에 참가하군 한다.

선거가 진행되는 날은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이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떨쳐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쁨안고 투표를 한다. 2009년 3월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지켜본 한 해외동포는 《유권자들이 새벽일찍부터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선거의 하루를 즐거운 명절로 맞고보내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애국애족의 그 마음들에 떠받들린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함을 절감하였다.》고 자기 소감을 피력하였다.

선거만 시작되면 상대후보를 떨구어뜨리기 위하여 갖은 인신공격을 가하고 없는 흠집도 만들어내며 여론을 조작하는 자본주의세계의 일반적인 선거풍토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풍경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인격파탄자, 인성미달자, 범법자들이 국회로 간다. 교통사고가 나서 뻐스가 강에 빠진다면 국회의원부터 제일먼저 건져야 한다. 왜? 강물이 오염되니까.》라는 유모아까지 나돌았던것이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의미

이번 선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것으로 된다.

지난 2월 3일 진행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이어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선거자대회를 열고 그이를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신뢰와 지지의 열기가 얼마나 높고 굳건한가를 보여주는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남김없이 과시되게 될것이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또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뜻깊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지금 공화국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신년사에서 올해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지금 온 나라에 새로운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이런 력사적시기에 진행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해 인민정권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 부강조국건설이 다그쳐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

브라질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2월 1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는 3월 9일은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여있음으로 하여 모든 공민들이 선거에 참가하고있다.

조선식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선거원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선거를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따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나라 헌법에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별,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여있다.

그 우월성은 또한 선거조직과 절차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철저히 실현되고 그들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고있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신이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주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수첩의 동그라미

며칠전 나는 어린 딸애와 함께 금성거리입구에 있는 공원에서 저녁산책을 하고 있었다.

문득 딸애가 맞은편에 쌍기둥을 이루며 서있는 초고층아빠트를 손짓하며 말하는 것이였다.

《아버지, 저 아빠트는 책을 펼쳐놓은것 같이 생겼어요.》

신통한 그 비유에 응수하며 내가 우람하게 솟은 아빠트에 시선을 주고있는데 또랑또랑한 딸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저 아빠트건설문제는 장군님의 수첩에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여있었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었어요. 아버지, 붉은 동그라미는 중요하다는 뜻이지?》

철부지의 말이였지만 나는 생각되는바가 있어 딸애의 머리를 정답게 다독여주며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래. 그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란다.》

그러며 호화로운 창가를 새삼스레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금시 후더분해졌다.

물론 장군님께서 늘 몸에 품고계신 자그마한 수첩에 **김일성**종합대학살림집문제라고 쓴 단어에 붉은 동그라미로 몇번이나 덧그려져있었다는 사연깊은 일은 이미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나에게 류다른 생각을 자아내군 하였다.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원수님께서는 이렇듯 훌륭한 교육자아빠트를 지어주시고 준공식에도 몸소 참석하시였다.

어제일처럼 떠오르는 그날을 더듬으며 나는 딸애의 말처럼 신통히 책을 펼쳐 세워놓은것만 같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아빠트를 이윽토록 응시하였다.

그러느라니 교육자살림집이 마치도 장군님의 수첩을 그대로 펼쳐놓은것만 같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언제든지 저 《수첩》을 펼치면 교육자가정들의 생활이 보일것이다.

수백수천마디의 말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고마운 이 제도의 교육중시정치를 장군님의 수첩에 그려진 동그라미가 다 대신하여 말해주고있는것이다.

나라의 크고작은 중대사들로 빼곡이 차있는 장군님의 수첩의 갈피에 특별히 새겨진 동그라미는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교육자들을 아끼고 내세우시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 사랑의 설계도와 같았고 원수님께서 장군님의 유훈의 뜻이 담긴 그 수첩을 이렇게 하늘높이 펼쳐 세우신것이 아니겠는가.

예로부터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을 원예사에 비겨왔다면 그 《원예사》들을 누구보다 중시하시는 령도자를 모시여 이 나라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의 꽃송이들이 피여나고 알찬 열매들이 주렁지게 될것이다.

나는 눈을 들어 환영처럼 눈앞에 떠오르는 동그라미를 그려보았다.

박 춘 봉

《조선-어린이들의 천국》

웰남인터네트 옥류아동병원을 소개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가 2월 10일 《조선-어린이들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옥류아동병원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글은 조선사람들은 유능한 의사들과 깨끗한 병원, 무상치료의 혜택을 보장해주고있는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해 커다란 긍지를 안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옥류아동병원은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개원된 현대적인 아동의료봉사기지이다.

병원에서는 갓 태여난 어린이로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몸소 아동병원건설을 지도해주시고 병원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명명해주시였다.

병원은 6층으로 되여있으며 일류급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한다.

여기에는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춘 각종 치료 및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들과 놀이장, 휴식장들도 있으며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들도 꾸려져있다.

어린이들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한다.

옥류아동병원과 함께 류경구강병원도 새로 훌륭히 일떠섰다.

이곳에서 평양시민들은 무상으로 이발치료를 받는다.

참으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는 조선사회의 복리의 특징이다.

이 나라의 인터네트신문 《바오 머이》를 비롯한 여러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옥류아동병원을 소개하는 동영상자료들과 함께 올렸다.

본사기자

조국방문인상기

인민군대, 그 부름에는

공화국에서 제국주의세력의 반공화국제재를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하고있는 비결은 선군정치에 있다고 본다.

서방에는 공화국의 선군정치라고 하면 프랑스의 나뽈레옹이 그러했던것처럼 군권에 의거한 강권정치같은것으로 리해하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때는 나도 선군정치에 대해 잘 몰랐었다. 그러던 내가 고국의 선군정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2001년 백두산관광을 갔을 때였다.

황해남도 은률태생으로 1951년에 남조선에 나가 북에 대한 악선전만을 들어왔던 나는 인민군군인들이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해제끼는것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현상이였기때문이다.

알고보니 공화국의 군대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군대였다. 고국방문의 나날에 보고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한것은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십년세월 침전되였던 감탕을 단 며칠동안에 퍼낸것도 인민군군인들이였고 단숨에의 정신으로 대규모 희천발전소를 불이 번쩍나게 일떠세운것도,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과 문수기능회복원,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세인이 경탄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운것도 다름아닌 인민군군인들이였다.

고국에서 왜 군대라는 부름앞에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칭호를 붙였는지 비로소 리해가 갔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사들을 선뜻 맡아나서면서도 주변지역 인민들의 리익을 털끝만큼이라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오히려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한 좋은 일들을 찾아하고있었다. 큰물이 나면 군용비행기가 동원되여 인민들을 구원하였고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도 군대가 앞장에 서서 해제끼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이다.

군대가 조국보위도 창조와 건설도 다 맡아하며 인민을 위한 헌신에서 기쁨과 락을 찾는 이런 희한한 현실을 고국말고 어디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그들이 진정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새로운 건축물들마다에 자기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칠수 없을것이며 그렇듯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될수 없을것이다. 평화를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북의 군대는 오늘도 총대로 인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창조사업들을 벌리고있다.

실로 선군으로 부강번영의 만년기틀을 마련해나가는 선군정치가 있어 고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제일이라고 말하고싶다. 그리고 북을 바로 알려면 누구든 북에 와보라고 권고하고싶다.

재오스트랄리아 동포전국련합회 회장 박 용 하

권투일가로 불리우는 긍지를 안고

평안남도 평성시 은덕동에는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 한 체육인일가가 있다. 아버지와 자식들이 대를 이어 권투계에 몸담고있는 쉽지 않은 권투가문이다.

김귀하로인 그리고 세명의 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 일가가 대를 물려가며 권투를 하고있는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김귀하로인은 원래 일본에서 살던 동포였다.

《내가 권투를 하게 된것은 일본땅에서 주먹만 세면 조선사람으로서 인정받을수 있고 돈도 생긴다는 나름대로의 일가견에서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하는 70고개를 넘은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국을 떠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조국이 없는 체육인의 명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바로 내 한생의 총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족적차별속에 어린시절을 보낸 그가 프로권투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것은 어느때인가 니시노미야 야구경기장에서 있은 프로권투시합을 구경한 후였다.

그때 그는 권투장에 올라가 일본선수를 보기 좋게 꺼꾸러뜨리는 우리 동포선수들을 보면서 권투를 할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오직 패권을 쥐여야만 한다는 야심을 안고 필사의 노력을 다한 덕에 그는 1957년에 일본페자급(57.15kg)의 신인패권을 쥐게 되였으며 데이껭권투구락부에 들어가서부터는 전일본페자급, 라이트급(61.23kg), 미들급(72.57kg), 그후에는 동양미들급의 패권자로 되였다. 일본권투계의 패권자가 되였지만 그는 경기장에 나설 때면 일본식이름을 달아야 했고 무쇠같은 주먹으로 상대를 누르고 우승한 덕에 차례지는것은 몇푼의 돈이 고작이였다. 세계패권을 쥐면 돈이 없어 고생하는 부모형제들을 먹여살릴수 있을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허무한것으로 되였다.

1965년 10월 일본선수 가이즈와 전일본선수권쟁탈전을 벌리던 때 그는 자기가 분명 이겼다고 생각했고 이 경기를 본 사람들도 모두 그가 이긴것으로 단정했었다.

그러나 일본인심판원은 비겼다고 선언하였다. 단지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해서 응당한 평가도 받지 못하고 경기장을 내려야 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흐르는듯 했다. 금전을 걸고 시합장에 나서군 하는 자신의 처지가 가긍스러웠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차츰 저멀리 바다건너 공화국의 품으로 달리였다.

그가 공화국에로의 귀국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것은 1966년 3월 남조선의 서울에서 진행되는 동양선수권패권경기를 앞두고서이다.

당시 일본당국은 공화국국적을 가진 김귀하선수가 남조선국적으로 바꾸어야만 경기에 나갈수 있다고 강요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돌려세워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은 총련과 공화국의 믿음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그해 4월 제136차로 귀국의 배에 몸을 실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자기의 체육인생을 공화국기를 더 많이 행성의 창공에 휘날리기 위한 후비선수육성에 바치였다.

《나에게서는 전도양양한 후비선수들을 키워냈을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입니다.》고 하면서 그는 1986년 8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23차 전국체육소조대회 권투경기에 참가한 소조학생들이 6개 몸무게급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지도밑에서 권투를 배운 많은 제자들이 전도유망한 선수들로 성장했으며 여러 경기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하는 결실을 보게 되였다.

그의 가족을 놓고 보더라도 세 아들모두가 권투를 배워 맏이 김성덕과 둘째 김성치는 여러 경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셋째 김성룡도 우수한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체육감독은 뭐니뭐니 해도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 선수들을 키워냈을 때 자기의 본분을 다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젊어서 훌륭한 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지 못한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때문에 내 몫까지 합쳐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릴 전도양양한 선수들을 키워내라고 자식들에게 늘 이르군 합니다.》

지금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권투집안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김귀하로인이 20여년간 권투감독생활을 하면서 키운 수십명의 선수들이 조국의 명예를 빛내인것에 대해, 자식들까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투계에 몸담고있는데 대해 사람들은 흔치 않은 가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깃을 달군 한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일본땅에 살았다면 우리 가정이 권투일가로 불리우는 오늘과 같은 긍지를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가 삼가 올린 편지도 보아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체육강국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려는 우리 일가의 결심과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고있습니다.》

공훈체육인인 맏아들 김성덕의 말이였다.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공화국을 하루빨리 체육강국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구상따라 김귀하로인의 일가는 오늘도 금메달을 향한 권투기술훈련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김 귀 하 로 인 의 가 정

마식령산발들에 울려가는 행복의 웃음소리

눈이 내려 하늘아래부터 발끝까지 모두 가 새하얗다. 그 빛에 반사되는 설경의 아름다움에 눈이 부신다. 여기가 바로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강산에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솟아난 마식령스키장이다. 얼마전 우리는 근로자들의 희열과 랑만이 한껏 넘쳐나는 마식령스키장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본사기자 권 지 혜, 최 대 성

인민사랑이 펼친 은빛주로들

우수가 지나고 날씨도 따뜻해지건만 마식령지구는 아직도 흰눈으로 덮여있다. 그 흰눈에 지치고 미끄러지고 어푸러지며 스키타기, 썰매타기하는 남녀로소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가 산골을 깨우고있다.

어제는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오늘은 또 희한한 스키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행복넘친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볼수록 기쁨과 랑만으로 가슴이 젖어들게 한다.

오늘의 이 희한한 전경은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마식령지구의 천지개벽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애국의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만난시련을 이겨낸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마식령의 천연산악지대에 스키장을 일떠세울것을 발기하시고 남들같으면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스키장건설을 단 1년동안 끝내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여 군인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120여굽이나 되는 험준한 산발을 여러차례나 넘고넘으시며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온갖 대책들을 다 세워주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마식령스키장의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다.

마식령스키장이 웅건한 자태를 드러냈을 때에는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완공을 기다린다고 하시며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안전하게 삭도를 타며 스키를 즐길수 있도록 자신께서 먼저 삭도를 타시고 안전성을 시험하시며 대화봉정점에까지 오르시였다. 그 모습을 TV로 뵈오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현대적인 대규모스키장을 꾸려주시고도 그곳에서 스키를 마음껏 타며 즐길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싶으시여 한해가 지나는 마지막날에 성대한 스키장개장식을 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과 열을 마식령의 은빛주로들은 전하고있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앞으로도 이 땅에서는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행복의 창조물들,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풍경이 끝없이 늘어날것이다.

눈의 세계에 펼쳐진 희열과 랑만

예로부터 산세가 너무도 험하여 말도 넘기 힘들어 쉬여가는 령이라고 그 이름도 마식령인 이곳은 해발높이가 768m에 달한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은빛세계 아름답게 펼쳐지는 마식령지구는 최적의 스키장으로서 울창한 수림과 더불어 유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마식령스키장의 총부지면적은 1 400여정보이며 가장 긴 스키주로의 길이는 5 091m, 가장 짧은 스키주로는 682m이며 주로의 너비는 40~120m, 최대경사각도는 39.8°이다. 대화봉까지 오르내리는 12.2㎞의 도로는 눈썰스와 눈오토바이들의 경주주로로도 리용되고있다. 이밖에 길이 80m, 너비 32m규모의 스케트장도 있다. 수려한 산림, 청신한 맑은 공기, 천고의 자연이 준 생태환경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마식령에 생겨난 스키장에서 희열과 랑만이 넘쳐흐른다.

스키는 인기있는 겨울철체육종목의 하나이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스키주로를 내려오면서 느끼는 상쾌함과 아름다운 설경을 맛본 사람이라면 스키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스키복과 스키기재를 착용한 사람들이 제가끔 실력에 맞는 스키주로를 향해 수평승강기를 타거나 2~4명씩 타는 의자식삭도 또는 1인용끌림식삭도를 타고 오른다. 삭도에 몸을 실으면 몸이 금방 허공으로 둥실 떠오른다.

스키는 인간의 발이 지면에 닿는 경기중 가장 빠른 경기라고 한다. 아스라한 스키주로를 눈깜짝할새 지쳐내려오는 사람을 보느라면 절로 손에 땀이 내배인다. 경사가 40°쯤 되여보이는 주로에서 누군가 환호성을 터치며 아래를 향해 미끄러져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순간, 갑자기 새처럼 날아올랐다가 가볍게 주로에 내려서는데 타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들이 더 급해 비명을 내지른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새 도착점에 이른다. 스키애호가인 원산시 봉춘동에 산다는 황원철(43살)에게 스키의 매력에 대해 물었더니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을 내려갈 때의 긴장감, 도약하는 순간에 느끼는 전률 그리고 눈깜박할새 지쳐내리는 속도》라며 씩 웃는다.

그런가하면 스키주로의 여기저기에서는 설경을 부감하는 동시에 탄성을 터뜨리며 경사면을 지쳐내리는 사람들,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키지도교원의 손을 잡고 열심히 스키를 배우는 사람들도 눈에 띄운다.

방향을 잡지 못해 넘어지는 스키초보자들을 보며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새털방석처럼 포근한 눈우에서는 미끄러져 넘어져도 오히려 즐거운 모양이다.

스키타기의 즐거움중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은 눈부신 조명아래에서 멋들어지게 지쳐내리는 야간스키타기이다. 반짝이는 조명에 반사되여 더 한층 눈부신 스키장은 사람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마식령눈바람은 몹시도 차진만 그속에서도 청춘남녀들이 야간스키를 타느라 여념이 없다. 무지개빛 눈부신 주로를 따라 맹렬한 속도로 지쳐내릴 때의 쾌감이야말로 야간스키의 멋이다.

스키장에서 만난 사람들

스키를 타는 내 모습을

마식령스키장에 와서 마음껏 스키를 타고보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야영생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야영기간 훈련을 잘하여 고급주로에서 스키를 타는 나의 모습을 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싶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학생
김 은 아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

마식령스키장이 개장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꼭 와보고싶어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왔다. 스키를 배워보니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견했던 휴가날자를 이틀이나 연장하였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펼쳐진 스키장의 절경에 취하니 좋고 또 늘 바빠 아이들에게 관심을 덜 돌려 안해로부터 지청구를 받았던것도 봉창하니 일거량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이다.

강원도 원산시 봉춘동
리 봉 수

멋쟁이호텔을 나도

건축설계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내외부를 목재로 정교하게 장식한것이며 색갈도 온화하고 따스한 느낌을 주는 더운 색갈을 위주로 하여 멋있게 꾸려진 마식령호텔을 보니 새롭게 느껴지는것이 많다. 나는 앞으로 마식령호텔과 같은 멋쟁이호텔을 척척 설계해낼수 있는 건축가로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배우겠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 학생
우 남 혁

대화봉에서 확신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고국에 왔다가 마식령스키장에 들렸는데 상상밖이다. 솔직히 내가 사는 미국에서도 지난해 조국에서 1년동안 스키장건설을 완공한다고 장담했을 때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듯 세계적인 스키장을 단 1년동안에 건설했다는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수 없다. 대화봉에 올라 나는 확신했다. 고국이 머지않은 앞날에 반드시 강성국가를 건설할것이라는것을.

재미동포 김 필 자

스키장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마식령스키장에는 스키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지난해말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의 모든 설비들이 현대적이라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스키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만아니라 스키장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 기상관측소

대화봉정점을 비롯한 스키장의 여러곳에 설치되여있는 자동기상관측장치로부터 온도, 바람, 기압, 습도 등 기상관측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종합감시조종실에 전송한다.

◆ 종합감시조종실

스키장의 60여개소에 설치되여있는 감시송상카메라에서 전송받은 자료를 대형액정TV화면으로 보며 스키장전반상태를 감시조종하고 기상관측소에서 받은 자료를 조선어와 영어로 변환시켜 대형전광판에 전송한다.

◆ 대형전광판

마식령스키장에서 제일먼저 눈에 띄우는 장치로서 온도와 습도, 기압과 바람상태를 비롯한 스키장의 기후상태를 조선어와 영어로 현시한다.

◆ 삭도

마식령스키장에는 스키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기 위해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여있다.

스키장의 삭도는 5개인데 그중 3개의 삭도는 대화봉정점까지 올라가는 4인용과 2인용의 자식삭도이며 6주로에 2인용의 자식삭도가, 초중급주로에 끌림식삭도가 있다.

◆ 수평승강기

스키장에는 스키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삭도와 함께 수평승강기가 초급주로와 초중급주로에 특색있게 설치되여있다.

이밖에 스키장관리에 필요한 눈다짐차와 눈치는차, 얼음깎기차가 있으며 스키주로에 인공눈을 형성하는데 리용될 눈포와 눈총, 눈포용저수지를 비롯한 눈포용시설들도 있다.

또한 스키타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눈썰스와 눈오토바이들이 있는가 하면 스키장의 여러곳에 야간조명체계와 음향설비가 있어 즐거운 기분으로 저녁에도 스키를 탈수 있다.

종합감시조종실

백설우에 솟은 마식령호텔

마식령스키장에 도착하니 눈앞에 펼쳐진 멋쟁이호텔이 대번에 우리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마식령호텔은 각지에서 모여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로 흥성이고있었다.

호텔안에 들어서니 한낮에도 기온이 령하로 떨어지는 바깥과는 달리 훈훈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안았다. 호텔의 내부장식 역시 대자연의 수림속에 자리잡은 특성에 맞게 정교하고 세련되면서도 특색있게 꾸려져있었다.

지하 2층, 지상 9층의 2개 호동으로 이루어진 마식령호텔에는 1등실, 2등실, 3등실, 가족방, 2인방, 6인방을 포함하여 120개의 손님방들에 수백여명을 수용할수 있게 되여있다.

1호동 2층에 있는 국제통신실과 회의 및 면담실, 상점 등을 돌아보던 우리는 《어린이놀이장》이라고 씌여져있는 방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의아함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안내원처녀가 《원래 건설초기에는 어린이놀이방이 예견되여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녀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왔다가 스키를 타보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며 호텔설계안에 어린이놀이장을 첨부하도록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각종 놀이기구들과 간식방까지 갖춘 어린이놀이장이 생겨나게 되였답니다.》라고 설명해주는것이였다.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지하 1층에는 여가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무도장과 오락실들이, 지하 2층에는 안마실, 리발실, 미용실들과 수중초음파, 덕수터, 찜방과 운동실을 겸비한 수영장이 구비되여있었다.

호텔복도를 따라 2호동으로 걸음을 옮기니 이곳에는 스키학교, 스키기재보장보관 및 복장임대소, 옷보관실, 스키기재수리소, 스키신발건조장 등 스키관광에 필요한 봉사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우리의 눈길을 특별히 끈것은 스키학교였다. 이곳에서는 스키지도교원들이 손님들에게 스키배우기와 관련한 지식을 배워주고있었다. 스키는 갓난아이가 걸음마 떼듯이 스키신발을 신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세와 균형, 제동, 돌리기, 압력조절 등 다양한 동작과 자세들을 배우고 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키신발을 신고 주로에서 지쳐내리면 다 되는것처럼 생각하는데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착실히 배워야 스키를 제대로 탈수 있고 부상도 예방할수 있다, 그래서 스키학교가 있는것이라며 홍춘화 스키지도교원은 손님들에게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배합한 스키교육을 하고있었다.

당장에라도 스키를 배우고싶은 충동을 금치 못하며 우리는 연회와 식사를 할수 있는 다목적식사실과 여러 식당들에도 들려보았다. 이곳에서는 마식령특산료리들인 마식령참나물김치, 마식령산나물밥, 칠보산송이버섯구이, 마식령더덕구이와 신선로, 곰발통찜, 제비둥지은이버섯탕, 자라인삼탕, 새끼돼지구이 그리고 갖가지 이름난 료리들을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었다. 호텔옆에 위치한 법동샘물원소에서 흘러나온 천연샘물을 주원료로 하는 차집과 커피점, 청량음료점들도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있었다.

스키관광을 즐기고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휴식을 소원하는 관광객들을 마식령호텔은 두팔벌려 기다리고있다. 동해명승 금강산도 좋지만 마식령의 설경도 특색있고 좋으니 겨울려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서 오시라고 마식령은 소리치고있는듯싶었다.

구름우에 둥실 떠있는 휴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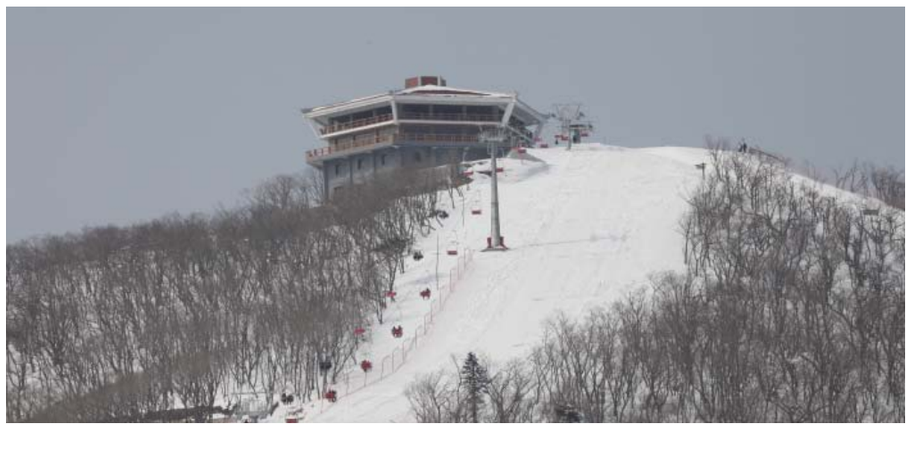
해발높이 1 363m인 대화봉정점에 삭도를 타고 올라가면 연건축면적이 1 700㎡에 달하는 휴식장이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동해의 해돋이장관과 설경에 잠긴 스키장의 경치를 부감할수 있다.

대화봉휴식장에는 산골맛이 나면서도 비행접시를 련상시키는 2층으로 된 휴식각이 있다. 한꺼번에 1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식사실과 대형무리등이 설치되여있는 천정, 나무로 장식한 벽체와 기둥들, 금잉어가 유유히 헤염치는 대형어항, 맑은 구슬알이 흘러내리는것과 같은 물장식기등이 있는 휴식각의 내부는 산속의 궁전을 방불케 한다.

이곳에서는 우리 나라 음식뿐아니라 세계의 이름난 료리들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

이곳의 김광일책임자는 대화봉휴식각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위치한 휴식각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마식령스키장에는 6주로에 중간휴식장, 초중급주로밑에 휴식장이 있어 사람들이 스키를 타다가 도중에 머물러 대화봉휴식각에서처럼 여러가지 간이음식과 청량음료, 즉석음식들을 봉사받을수 있다.



남조선정보원 첩자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해 자백

공화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적발체포된 남조선정보원 첩자 김정욱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월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기자회견에는 국내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기자들, 주조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김정욱이 발언하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밤 중국 단동에서 밀선을 타고 불법침입하여 륙로로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8일 새벽 보안원들에게 단속되여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반공화국범죄행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김정욱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으며 반공화국정탐행위, 반공화국종교행위를 하였다.

북에 《기독교》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돈을 받고 북의 사람들을 협조자로 소개, 중개하였다.

뿐만아니라 중국 단동에 지하교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끌어들인 북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하거나 담화의 방법으로 북의 내부실태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하였다.

북의 사람들앞에서 정치체제를 모독하는 설교를 하고 또 그들스스로가 북을 헐뜯는 기도를 하거나 글을 쓰게 하였으며 그들이 단동으로 오는 남쪽과 미국사람들 앞에서 반체제행동을 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앞으로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동상이 있는 곳마다에 《교회》를 세우고 북의 전지역에 500개의 《지하교회》를 세우면 북의 정치체제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나라가 서게 된다고 하면서 《지하교회》를 세울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하였다.

2008년 10월 남쪽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목사로부터 소개받은 4명의 《탈북자》들을 3국으로 빼돌리다가 단속되여 벌금을 내고 나온적이 있다.

북에서 넘어온 화교 6명을 3국을 거쳐 남쪽으로 빼돌리였고 자기가 운영하는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던 북의 사사려행자 전영철도 남쪽으로 보냈었다.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였다.

지하교회로 사용하던 세집에 남쪽위성TV를 설치하고 수백권의 반공화국책들도 가져다놓고 북의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리용하였으며 서로간의 경쟁심을 부추겨 북의 정치체제와 정책을 헐뜯게 하였다.

위성TV로 남쪽의 《기독교방송》, 성록화물통로를 비롯하여 100여개의 통로들이 나오게 하였으며 《탈북자》들의 수기와 북의 지도부와 체제를 헐뜯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종교잡지들을 가져다놓고 그들이 수시로 보게 하였다.

김정욱은 모든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북의 사람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한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하였다.

그는 북의 해당 법기관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기의 범죄가 어렵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머리속에 새긴 적대의식에 기초한것으로서 이 모든 행동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바라는 외부세력과 보수세력에게만 좋은것이며 우리 민족의 리익에는 절대적으로 백해무익한것이고 부질없는짓이라는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였다.

지금도 조선북부국경과 린접한 중국변방지역들에서는 많은 《대북》선교활동가들과 탈북유도인물들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한것과 같은 행동들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적대감에 빠져 종교인들까지 리용하는 《국정원》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리용당하여 민족앞에 죄를 짓고있는 《대북》선교활동가들에게 나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뒤늦게라도 잘못을 고쳐나가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수십명의 북의 사람들에게 지난 기간 중국에서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거짓이며 범죄라는것을 솔직히 교백하면서 그들앞에 사죄한다.

이어 김정욱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공화국국경을 불법침입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 말하였다.

또한 공화국경내에 불법침입한 목적과 가지고온 짐속에 있는 물건들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밀입국한 목적은 때가 되면 북의 민심을 흔들고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는데 리용할 《반체제지하교회망본부》를 평양에 만들어놓고 북의 내부실정과 《지하교회》활동상황을 촬영하여 남쪽교회와 《국정원》에 알려주는것이다.

국경을 넘어오면서 가지고온것은 성경책들과 기억기카드, MP3 100개, 의약품과 식료품, 극소형카메라, 성록화물 CD 40장이다.

기억기카드속에는 《기독교》영화들과 동유럽나라들이 붕괴될 때 지하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상록, 성경강의, 찬송가 등이 들어있고 MP3들에는 북의 《인권》문제를 비방하여 쓴 책을 가지고 만든 련속극, 성경설교집 등이 들어있다.

각종 의약품과 식료품은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가지고왔으며 극소형카메라는 평양시내의 여러 장면들과 《지하교회》활동상황, 《교회》세울 자리 등을 촬영하여 가져가고 성록화물 CD는 신도들이 그것을 복사, 밀매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할 생각으로 가지고왔다.

로씨야와 중국, 일본의 기자들이 질문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욱의 반공화국범죄행위를 립증하는 자료들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에 대한 시청이 있었다.

본사기자

완화의 기류에 역행하는 불장난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끼여들어 감 놓으라, 배 놓으라 하며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음으로양으로 방해하던 미국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4일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았다.

미국이 이번에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두고 《년례적》이라느니, 《방어적》이라느니 하면서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저들의 북침전쟁연습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진행되여온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진행되여왔다. 《작전계획 5027》은 조선반도 《유사시》 수십만의 미륙군병력과 항공모함강습단 6개를 동원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계획이다. 이 계획은 미국이 《신속억제전력》을 조선반도에 전개하는 1단계, 《북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2단계, 대규모병력이 북측해안에 상륙하는 3단계,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4단계, 《점령통치기구》를 내오는 5단계로 나뉘여져있다. 이것은 《작전계획 5027》이 공화국을 힘으로 타고앉으려는 핵선제공격리론으로 되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작전계획 5029》는 공화국에 테로단체나 특수전병력을 잠입시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일으켜 북을 어째본다는것이다.

계획자체가 이렇다보니 훈련내용도 공격적이고 침략적이다. 미국은 이런 선제공격계획에 따라 매해 훈련을 진행하면서 선제공격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완비해왔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도 미군부는 훈련을 통해 《작전계획 5029》를 수정하며 보충완성한다고 떠들었다. 그러니 이번 연습이 방어가 아닌 핵선제공격을 노린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고 떠드는것이야말로 내외여론을 우롱하고 기만하는것이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몰아오는 위험한 전쟁세력, 평화파괴세력으로서의 저들의 호전적본색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남조선에서 진보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두고 《급변사태대비 명목아래 〈한〉 미련합군을 침투시키는 훈련을 강화하는 등 적대적인 성격이 뚜렷한 전쟁연습》이라고 단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 겨레의 화해, 단합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인 미국은 이 땅에서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암적존재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라》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지난해 〈한〉미년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맞춤형억제전략과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맞춤형억제전략은 북의 핵위기상황류형을 핵위협단계, 사용림박단계, 사용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북이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하겠다는 그야말로 전쟁억지는커녕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공세적전략》이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부천 《평통사》는 《〈한〉미 량국은 북의 변화유도를 천명하고 올해 연습에서 북급변사태 대응씨나리오를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서 예정된 북급변사태시 최단시간내 평양점령을 목표한 대규모상륙훈련이나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 북내 저항세력지원과 구축작전을 포함한 특수전, 심리전에 관한 훈련 등은 북의 변화를 군사적으로 유도(북정권 붕괴)하겠다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훈련의 구체적내용을 공개하며 성토했다.

광주진보련대,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등도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여곡절끝에 열린 대화국면을 파탄내고 또다시 전쟁위기를 부를수 있다.》며 군사훈련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대결로 치닫던 남북이 7년만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우여곡절끝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에 〈한〉미당국이 그 어느때보다도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의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을 벌리는것은 남북대화와 협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대화단절은 물론 첨예한 대결국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침략적인 군사연습의 위험성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60년이상 끊이지 않는 전쟁위기는 분단과 정전체제에서 비롯된다.》며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라.》고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남조선 각계각층 군중 20만명 전지역에서 투쟁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월 25일 서울과 대전, 울산, 부산,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에서 각계각층 군중 20만명의 참가하에 대규모 반《정부》투쟁이 전개되였다.

서울 시청앞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4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생존권 쟁취하자.》고 웨쳤다.

그들은 현 《정부》의 집권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화말살로 이어진 나날이였다고 하면서 로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녀성 등 각계각층이 더이상 그대로 참고있을수 없어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 발언한 보건의료로조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민을 속이며 강행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부문을 재벌들의 돈벌이터로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대규모실업과 의료비폭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단죄하였다.

철도로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철도민영화에 계속 매달리고있다고 하면서 투쟁으로 로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국이 불법선거에 개입한자들에게는 무죄를, 아무런 증거도 없는 내란음모사건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장애인차별철폐련대 상임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기만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성토하면서 《장애인들의 삶을 지켜달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달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부정선거와 민주화말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어떤 탄압속에서도 각계가 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권자퇴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렸다.

시청앞광장에 다시 모인 투쟁참가자들은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본사기자

성노예범죄는 덮어버릴수 없다

지난 2월 22일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아베정권이 파견한 고위인물의 참가하에 제9회 《다께시마의 날》기념식이라는것이 벌어졌다.

2006년부터 매년 벌어지고있는 《다께시마의 날》기념식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결정》하였다는것을 리유로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령유권》의 주요근거로 삼고있는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력사적사실과 법적근거가 하나도 안받침되지 못한 불법무법의 조작문서, 침략문서로서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빈종이장에 불과하다.

당시 일본은 독도강점과 관련된 《법적문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이 무인도(독도)는 남의 나라에서 이것을 점령했다는 형적이 없은즉… 명치 36년이후 나까이 요사부로란자가 이 섬에 넘어가 살면서 어업에 종사했다는것은 관계문건을 통하여 명백해진 사실이므로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 나라 소속으로 하며…》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하지만 《시마네현고시 40호》가 《령유권》의 기초로 삼은 자료는 오히려 독도가 당시 우리 민족의 땅이였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그때 시마네현의 어업가인 나까이 요사부로는 독도주변에서의 물개잡이독점권을 얻기 위해 1904년 9월 일본 농상무성에 《리앙꼬섬(독도)차용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독도를 10년기한으로 차용할수 있도록 조선봉건왕조와 교섭해줄것을 제기하였다. 그가 독도를 차용, 즉 빌려줄것을 제기한것은 당시 독도가 일본의 섬이 아니라 조선의 땅이였기 때문이다.

나까이자신도 후날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령유》이기때문에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조선봉건정부에 차용(청원)을 하려고 하였다.》(1910년도에 쓴 나까이의 리력서)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근대일본의 여러 력사학자들도 인정하면서 기록으로 남기였다.

《나까이는 이 섬(독도)을 조선령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설명하여 동정부(조선봉건왕조)에 임대청원하려 하였다.》(1923년 7월 《시마네현지》)

《나까이는 리앙꼬섬(독도)을 조선령토로 믿고있었으며 동정부(조선봉건왕조)에 임대청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1933년 2월간행 《오끼도지》)

보는바와 같이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섬이라고 우기며 력사적, 법적근거로 내세우고있는 이른바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것은 기초로 삼은 자료자체가 오히려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한 아무런 력사적, 법적타당성도 가지지 못한 문서인것이다.

때문에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도적고양이식으로 시마네현의 관보인 《산잉신보》에 자그마하게 게시하였다.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자그마한 지방관청인 시마네현이 일본국가를 대표할수 없으며 지방관청의 고시가 령토권선포와 같은 국가적 및 법적성격을 띠지 못한다는것은 공인된 관례다.

실례로 일본이 도꾜에서 남쪽으로 1 000Km나 떨어져있는 태평양상의 자그마한 섬인 오가사와라섬을 자기 나라의 령토로 편입할 때 일본당국자들은 유럽의 12개 나라들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오가사와라섬의 부속섬인 미나미도리섬을 자기 령유로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고시를 중앙신문들인 《요미우리신붕》과 《미야꼬신붕》 등에 요란스레 실었다.

하지만 《다께시마편입》에 관한 국가적의사라고 떠드는 이른바 내각의 《결정》이 정부의 관보에도, 신문들에도 게시되지 못하고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통보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시마네현고시》라는것이 얼마나 흑막속에 날조된 협잡문서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더구나 그보다 5년전인 1900년 조선봉건왕조가 우리 민족이 수천년동안 주권을 행사해오던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근대의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칙령 제41호로 확인하고 정부관보로 널리 선포했다는것을 고려할 때 《시마네현고시》를 근거로 《독도령유권》의 《합법화》를 떠드는 일본의 망동이 얼마나 파렴치한것인가는 더욱 낱낱이 드러난다.

력사적사실들과 자료들은 오늘날 일본이 독도강탈책동의 력사적, 법적문서로 내흔드는 《시마네현고시》의 허황성과 불법성을 명명백백히 폭로하고있다.

력사학 교수, 박사 김은택

《시마네현고시》는 불법의 문서

이른바 물질문명을 자랑하면서도 정신도덕적면에서는 원시인들도 낯을 붉힐 정도로 파렴치한 문명세계의 야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과거 저들이 저지른 성노예범죄를 한사코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일본의 정치인들이다.

얼마전 일본의 내각관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검토할 기도를 또다시 드러냈다.

그는 국회질문에서 《고노담화》의 근거로 되는 피해자들의 조사에 신빙성이 없다는 정부의 립장을 거들며 이러한 소리를 내뱉았다.

이것은 일본이 얼마나 량심이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저렬하며 정치적으로 파렴치한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

1993년 당시 일본내각관방장관이였던 고노가 정부적립장의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구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죄의 사를 표명한것은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더는 부정할수도 묵여둘수도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백지화하여 과거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피하여 짐승도 낯을 붉힐 릉욕과 학살을 감행케 한 일본의 성노예범죄야말로 천추를 두고 인류의 저주를 받을 반인륜적인 야만행위이다.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 임신부에 이르기까지 말그대로 《사냥》을 하여 짐승우리같은 칸막이집에 넣고 주야로 줄을 늘어서서 한명의 녀성에게 수십명씩 달려들어 갖은 짐승같은짓을 다하고도 모자라 불응하거나 저항하면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말그대로 타민족에 대한 일본의 대강간행위이고 인종말살행위였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전쟁과 범죄행위를 기록하고있지만 근 수십만명의 타민족녀성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하고 잔인하게 인권과 성을 유린하고 육체를 폐기시키고 생명을 참살한 성노예범죄는 일찌기 없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이 도리이고 법도이며 관례이다.

그런데 일본은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범하고도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혹은 붉힐 필요가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의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낯을 붉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수염을 내리쓸고있다.

일본의 도덕성이란 이렇게 추악하다.

일본당국자들이 아무리 생떼질을 부려도 없는 사실이 생겨나거나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바늘이라면 혹 숨길수도 있겠지만 조선민족의 뼈속깊이 새겨지고 아시아인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엄청난 반인륜적범죄를 어떻게 숨길수 있겠는가.

범죄행위는 어느때 가서든 반드시 결산되기마련이다.

일본당국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며 성노예범죄를 감추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